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법

《죽음, 또 하나의 세계》 최준식 지음 | 동아사이아 | 320쪽 | 값 15,000원

현세주의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한국인에게 죽음은 불청객에 지나지 않는다. “죽은 정승은 산 개만 못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우선 유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죽음 자체에 대해 종교적·철학적 성찰을 하지 못한다에서 찾는다. 또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부의 풍요의 추구에만 매진해온 사회 정세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언제부턴가 한국인에게 죽음에 대한 성찰 대신 오직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의 싸늘하고 처참한 모습만이 아로새겨져 있는듯하다.

《죽음, 또 하나의 세계》는 그런 점에서 ‘근사체험’(NDE : Near-Death Experience)이라는 당혹스러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이라니, 근사체험이라니. 근사체험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인 칼 베키에 의하면 근사체험은 ‘체외 이탈→터널로 들어감→저승에 도착→빛의 존재를 만남→지나간 삶을 회고함→장벽 앞에 다다름→몸으로 돌아옴’ 등 7단계를 거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사체험을 믿고 안 믿고 여부를 떠나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인식의 고양, 자기 수용(자아존중감), 반물질주의와 반경쟁주의, 영성의 심화 등 인격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사체험자들은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한 사랑이 증폭되고 감수성이 확장되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즐겁게 살게 된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로 근사체험을 할 순 없지만 ‘유언장 쓰기 운동’처럼 죽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현세에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죽음학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적 학문이라는 것이다.

신동섭 기자



‘때를 끊지 않고 곳을 뛰어 넘은 겨릿말’ 살리기

《배달말 가르치기》 김수업 지음 | 나라말 | 452쪽 | 값 20,000원

솔직히 고백하자. 기자로 일한 지난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 하나로 우리말 알기에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서 더 이 책에 애착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배달말(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며 ‘배달말 가르치기(국어교육)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천착해 온 우리말교육연구소 김수업 소장이 “길을 잘못 들어 선 배달말 가르치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내놓은 책이다.

저자는 배달말을 가르치는 학문이 교육 현장을 보살피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논문과 책만 수북이 쌓아놓으면 되는가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 이어서 “그것이 학생과 교사의 삶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빼고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야 쓰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한다. 결국 국어교육은 현장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말 벗이라도 되어주면서 더불어 나아가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겨리의 말과 삶을 다루는 노릇이니 남의 흉내보다는 우리를 깊이 살피서 남다른 집을 세우는 학문이 곧 배달말 가르치기라는 것이다.

저자는 ‘국어’나 ‘한국어’ 대신 ‘배달말’이라는 이름을 고집한다. 우리가 써야 하고 국어교육이 다루어야 할 ‘국어’란 한 때나 한 곳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의 말이 아니라, 나라야 어떻게 되었든 때를 끊지 않고 곳을 뛰어 넘어 온 겨리가 언제나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토박이말이 있는 데도 사대주의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분별없이 남의 말을 끌어들이며 배달말을 죽이는 일은 겨리의 얼을 짓밟는 바보짓”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대중말(표준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사투리도 북돋우며 가꿀 때 배달말이 더 온전해 진다고 말한다. 한편 컴퓨터와 인터넷, 손전화로 무장한, 새로운 말살이를 시작하는 세대에 맞는 배달말 가르치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장동석 기자

사실주의적 언어로 그러낸 중년의 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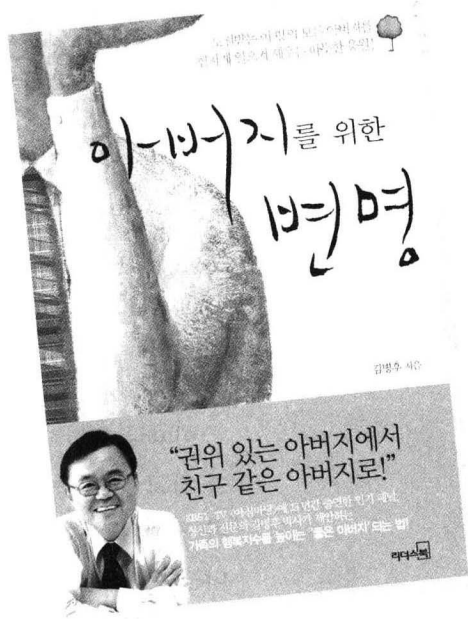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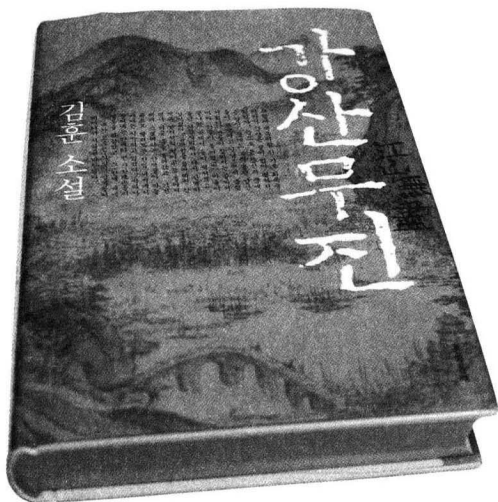
(강산무진) 김훈 지음 | 문학동네 | 381쪽 | 값 11,000원

1995년 《뱃살무늬토기의 추억》 이후로 십 일 년 만에 나온 김훈의 첫 소설집. 표제작 〈강산무진〉을 비롯해 2004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화장〉, 2005년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언니의 폐경〉 등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크고 작은 기업의 전·현직 사장이나 간부, 등대지기, 교수, 강력계 형사, 전업주부, 권투선수, 택시 기사, 스님 등. 작가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를 통해 이들의 일상을 묘사한다. 그 언어가 너무나 세밀하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작가의 꼼꼼한 현장 취재의 결과물로, 오랜 기간 일간지 기자 생활을 했던 그의 전직과 무관하지 않다.

“저녁반 택시 운전자 김장수(47세)는 오후 네시에 영업을 시작했다. 연신내 차고지에서 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LPG가스 이십오 리터를 넣었다.”(〈배웅〉), “저의 출장 목적은 피해자들을 돈으로 진정시키고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구슬러 고발을 막는 일, 그리고 아이새도와 립글로스의 마진율 인상을 요구해온 지방 총판장들과 타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화장〉)” 같은 문장은 언뜻 무미건조한 기사체의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들은 삶의 향기와 의미를 상실한 중년 남성의 거칠한 심리 상태와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소설의 맥락 속에서 힘을 얻는다. 이러한 극사실주의적인 문장들은 작가 고유의 간결하고 흡입력있는 문체와 합쳐져 소설 언어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에세이스트가 아닌 소설가로서의 김훈의 진면목과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김지희 기자



힘들지만 행복한 여정 ‘좋은 아버지 되기’

(아버지를 위한 변명) 김병후 지음 | 리더스북 | 311쪽 | 값 10,000원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는 ‘가정문제’ 전문 상담가다. 수많은 아버지들을 상담해 오며 ‘자식을,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처럼 딱 막힌 사람처럼 굴까’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던 그다. 하지만 곧 우리시대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다.

책은 나이별 아버지 역할을 설명한다. 이제 막 아버지가 된 젊은 아버지의 역할로부터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장년의 아버지, 그리고 노년의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각각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예로 들어 아버지 역할을 꼼꼼히 설명한다.

저자는 최근의 높은 이혼율을 ‘학습되지 않은 아버지’ 탓으로 돌린다. 이전 세대로부터 배운 아버지 역할은 단지 명령하고, 권림하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성적인 뇌를 가진 아버지들은 ‘부성’이 후천적인 학습과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한 기억이 없을 경우 더더욱 그렇다.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내’의 역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저자는 현대의 아버지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곳곳에 펼쳐놓고, 가족 역시 아버지들의 성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도록 권면한다. 궁극적으로 책은 ‘아버지’ 역할을 불안해하고 힘들어 했던 수많은 남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송보경 기자